

호남 최대 창업허브...광주 ‘스테이지’ 개관

350억원 투입...광주역 창업밸리 첫 인프라·통합형 창업 지원 플랫폼
투자기관·창업 지원기관 등 입주...네트워크 구축·시장 진출 지원 기대

광주 청년들의 창업을 뒷받침할 ‘빛고을창업스테이션(STA·G, 스테이지)’이 문을 열었다.

광주의 창업생태계 핵심거점인 ‘광주역 창업밸리’의 첫 인프라가 개관함에 따라 광주시는 1조원 규모의 창업펀드 조성과 창업실증,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수화물 주차장 부지에 건립된 스테이지의 개관식이 열렸다.

총사업비 350억원이 투입된 스테이지는 ‘STARTUP STATION GWANGJU’의 약자로, ‘창업기업이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라는 의미다.

지난 2월 준공한 스테이지는 지상 5층(부지 5503㎡, 연면적 8950㎡) 규모의 창업지원시설로 창업기업, 투자전문기관(VC 벤처캐피탈, AC 액셀러레이터), 창업 지원기관 등이 함께 입주하는 통합형 창업 플랫폼이다.

창업기업 사무공간 41실과 투자기관 전용공간 5실 외에도 창업 친화적 공유 공간이 갖춰져 입주자

간 협업과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초기 창업기업에게 기업친화적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기업 성장주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현재 30개 유망 기업과 유관기관이 입주해 있다. 30여개 투자기관도 상주해 투자와 창업을 지원,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투자전문기관들이 함께 입주해 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네트워크 구축을 돕고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날 개관행사는 ‘G-Startup 2030, 광주야 날자’를 주제로 ‘2030 대한민국 창업수도 광주’ 청사진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또 광주시-신용보증기금-광주은행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1000억원 협약자금 MOU’ 체결, 중앙부처와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등 40여개 기관·단체 간 파트너십 형성 및 상호지원을 다짐하는 협력 행사도 열렸다.



19일 북구 빛고를 창업스테이션에서 ‘스테이지(STA·G) 개관식’이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창업지원센터 개관을 축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투자유치 IR(기업설명회), 스테이지 홍보 부스, 광주역 인근 주민과 창업가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등도 운영됐다.

광주시는 스테이지를 중심으로 전용 펀드 운영, 빛고를 투자채널지 개최, 대·중견기업 공동 협업모델 개발, 글로벌 진출, 액셀러레이팅 지원 등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

이다.

이를 위해 전국 9개 민간 투자 파트너사를 선정해 맞춤형 액셀러레이팅과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애초 5000억원 창업펀드를 목표로 삼은 민선 8기 광주시는 현재 6236억원을 조성했고, 1조원 펀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서

“광주역 창업밸리를 중심으로 지역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재 양성, 실증, 글로벌 진출까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역 유휴 부지에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민 10명 중 6명 “ 시내버스 임금 인상률 3% 적절 ”

광주온, 시내버스 파업관련 설문

광주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버스 임금인상률은 3%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번째 버스 요금을 동결해 1400억원대의 준공영제 적자를 시민들의 예산으로 매우는 것이 한계라고 본 것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광주온(ON)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운전원 임금 인상률, 시내버스

요금 조정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3일간 실시했다.

시민정책 참여단 6342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현재 진행 중인 버스파업과 관련 운전원의 적절한 임금 인상률을 묻는 항목에 ‘3%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이라는 응답이 58.6% (3716명)으로 가장 많았다.

‘2% (사측제안)’라는 응답이 25.1% (1594명), ‘8.2% (노조측 제안)’ 10% (634명), ‘기타’ 6.3% (398명)가 뒤를 이었다.

준공영제 적자로 인한 재정지원 감축을 위한 요금 인상(카드요금 기준)에 대해서 묻는 항목에는 응답의 62.2% (3947명)가 1500원대 인상이 필요

하다고 답했다.

현재 요금(성인 카드요금 기준)인 1250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5.1% (2227명)이었다. 1600원대와 1700원대는 각각 1.3% (84명)가 나왔다.

현재 요금이 성인 현금 기준 14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기준 요금은 더 높게 본 것이다.

요금 인상 시기를 묻는 항목에는 2026년 상반기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3.2% (2737명)로 가장 많았고, 2025년 하반기(30.9%, 1960명), 2027년 상반기(17.6%, 1114명), 2026년 하반기(8.4%, 531명) 순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태균 전남도지사, 소멸위기 지역 청년특구 특별법 건의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임시회서 제정 촉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19일 여수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최근 5년간 전남에서만 1년에 평균 8000여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다”며 청년 인구유출과 지역소멸 극복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과 문화

주거, 경영상담 등 보편적인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최정기 여주시 부시장, 백인숙 여주시의회 의장 등도 참석했다.

의장단은 임시회에서 지역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 21건을 상정, 의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외에도 전남과 같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송전 비용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의 협의체로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임시회를 주관한 김태균 의장은 “향후 지속적 교류를 통해 지역 인구감소 및 소상공인 경영위기 등 공동현안을 함께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속도 낸다

도, 전남연구원과 도민설명회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 등 소개

전남도가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전남도는 19일 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동부지역본부에서 동부권 도민설명회를 열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와 특별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도 소개했다.

전남도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국회 심사에 앞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특별법에 담긴 특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송효진 성결대 교수와 이병현 전남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가 타 지역보다 심각하다”며 “제도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도에 특화된 맞춤형 권한 이양과 자치권 확대를 통한 지역 자생력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6월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과 에너지·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권한 이양 등이 담겼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 민간정원·수목원서 수국 축제 즐기세요”

8월까지 7개 정원서 개최

전남도가 8월까지 도내 민간정원과 수목원에서 수국 축제를 개최한다.

2025년 ‘남도 K-가든’ 페스티벌 일환인 이번 축제는 고흥 씩섬 등 7개 정원서 열린다.

민간정원 1호인 고흥 씩섬과 고흥 ‘장수호 힐링정원’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수국 축제가 진행된다. 해남 ‘비원’은 오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100만송이 수국 축제가 해남 ‘포레스트 수목원’은 7월 14일까지 ‘망갈 수국 축제’를 개최한다.

담양 죽화경도 7월 26일부터 8월 말까지 ‘유럽 수국 축제’가 열린다. 장흥 월남치유정원은 8월 15일까지 ‘제5회 수국 꽃잔치 그리고 귀족호도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밖에도 여수 ‘꿈꾸는 정원’, 장흥 ‘하늘빛 수목원정원’, 장성 ‘루몽드정원’에서도 수국을 만나 볼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1985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